개표의 밤

관심사 독해 리포트 · 2026년 11월 4일자 수집분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와 접근 중단 5개(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를 뺀 12개 모두 접속됨. 전날 새 글 11편을 모두 읽고 8편을 다뤘으며, 3편(에콘브라우저의 메인주 베팅 차트·휘발유 가격 차트, 마지널 레볼루션의 화요일 링크 모음)은 생략 — 메인주 베팅은 1번 꼭지에서 결과와 대조, 링크 모음의 부고·AI 감사 항목은 메모로 기록. 8+3=11.

선거일 다음 날의 글들은 개표의 글들이다. 투표수가 집계되어 두 블로그의 선거 전야 예상(예측시장 3대 1)이 확인됐고, 50만 닢의 고대 동전이 집계되어 천 년 전 지중해 무역의 추이가 읽혔고, 119편의 논문이 새로 철회되며 한 학술지의 누적 철회가 255편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한 연구자는 신경망의 가중치 숫자 나열을 그대로 '읽어' 그 모델이 무엇을 하도록 훈련됐는지 알아맞히는 실험을 노트북에서 재현했다. 숫자를 쌓아 올려 무늬를 읽는 일 — 오늘의 공통분모다.

---

1. 개표 — 민주당, 상하원 동시 탈환

[사실] 11월 3일 중간선거의 결과를 외신 보도로 확인했다.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가져갔다 — 하원은 최소 231석 대 141석(NBC 추산으로는 259석 이상까지), 상원은 7석을 더해 54석 대 44석으로 뒤집었다. 상원 탈환의 지도가 파란 물결의 깊이를 말해 준다 — 텍사스(탈라리코가 팩스턴 격파, 주 단위 선거 민주당 승리는 1994년 이후 처음), 노스캐롤라이나(쿠퍼가 와틀리 격파), 메인(잭슨이 6선 도전의 콜린스 격파), 오하이오(브라운이 현직 허스티드 격파), 아이오와, 캔자스(1932년 이후 첫 민주당 상원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1998년 이후 처음). 주지사 자리도 텍사스·조지아·네바다·오하이오·아이오와가 넘어갔다. '직전 짝수 해에 상원을 얻은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잃은' 첫 사례는 1954년 이후 처음이라는 집계도 있다. 어제 리포트의 예측시장 꼭지(민주당 싹쓸이 3대 1)는 적중했고, 차트만 실렸던 메인주 베팅 글(개표 56% 시점 잭슨 50.8%)도 잭슨 승리로 귀결됐다. 바이스 대통령이 패배 원인으로 이란 전쟁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꼽았다는 보도, 하원 공화당 대표가 새 회기의 당 지도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뒤따랐다.

[사실] 피드 속 두 블로그의 반응은 같은 결과의 다른 독법이다. 마지널 레볼루션의 코웬은 짧은 '지위 목록'으로 정리한다 — 오른 것: 일글레시아스(사회적으로 온건한 민주당 후보들의 선전), 선거자금에

대한 통상적 사회과학, 네이트 실버의 예측. 내린 것: 관세, 부정부패, 이란과의 전쟁, 부유세(캘리포니아에서 패배), 게리맨더링(파란 물결 앞에서 공화당에 역효과). 그는 절차가 무사히 진행됐다고 평가한다. 카페 하이에크의 부드로는 유권자의 반(反)트럼프 표심에 동의하면서도 승리한 민주당을 "경제 문맹"이라 칭하며 양쪽 모두에 실망하는 이 블로그 특유의 사설을 썼다 — 인용 그대로, 이 진영의 목소리로 전한다. **[해석]** 선거 결과 자체는 복수 언론(AP, NBC, BBC, Ballotpedia)의 교차 확인이 된 사실이고, 평가는 각 블로그의 것이다. 이 보고서는 결과를 전하고 해석은 귀속한다.

---

2. 캘리포니아 부유세, 부결 — 주민발의 40호의 최후

[사실] 개표 결과로 확인된 또 하나의 결말 — 10월 30일 리포트부터 추적해 온 주민발의안 40호(10억 달러 초과 자산에 일회성 5% 부유세, 세수는 의료·식량·교육에 배정, 샌더스 지지·뉴섬 주지사 반대)가 반대 약 56%, 찬성 약 44%로 부결됐다. 5년간 약 1,000억 달러 세수로 추산되던 안이다. 동시에 상정된 42호(주의 신규 개인재산세 금지)는 통과해, 부유세가 통과했더라도 상쇄될 장치까지 마련됐다. **[해석]** 이 리포트의 부유세 실록이 마감됐다 — 10월 30일 반대 진영의 이주 행렬, 11월 3일 매사추세츠 국세청 자료(고소득 신고 13.5% 감소), 그리고 11월 3일 밤 유권자의 직접 심판. 찬성 44%라는 수치는 이 아이디어가 소수파 구호는 아니게 됐음을, 부결은 '움직이는 과세 대상' 논리가 유권자에게도 통했음을 보여 준다. 코웬의 '지위 하락' 목록에 부유세가 들어간 것과 같은 장면이다.

---

3. 가격 급등은 독점의 증거인가

[사실] 카페 하이에크 '오늘의 인용'이 뽑은 랜즈버그의 문장(2007년 저서에서)은 직관을 뒤집는 경제학 연습이다 —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때 '담합이나 독점의 증거'라는 반응은 정반대다. 담합자와 독점자는 수요·공급 변화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연중 한계까지 쥐어짜므로 가격을 크게 올릴 여지가 오히려 없고, 독점자의 고객은 항상 가격에 민감하므로(민감하지 않다면 민감해질 때까지 가격을 올렸을 것이므로) 큰 가격 변동은 경쟁의 증거라는 것. 블로그 주인은 자연재해와 전쟁 뒤의 가격 급등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해석]** 같은 날 에콘브라우저에 휘발유·디젤·브렌트유 가격 갱신 차트가 올라왔다(차트만 실려 생략) — 이란 전쟁과 '평화 협상 진전' 보도 사이에서 출렁이는 유가(11월 3일 꼭지)에 대한 시의적절한 해석 도구로 배치됐다. 독점 이론의 표준 결과를 대중 언어로 옮긴 인용으로, 블로그의 선택 취지와 함께 전한다.

4. '차이나 쇼크' 논쟁의 비대칭

[사실] 카페 하이에크의 공개서한 형식 글 — 최근 이콘토크 팟캐스트의 '차이나 쇼크' 회의론 에피소드를 링크했다가 받은 독자 항의에 대한 답장이다. 논점의 수치: 대중 무역 확대로 잃은 일자리의 최대 추정치는 13년간 240만 개인데, 같은 기간 미국의 역동적 노동시장에서 소멸한 일자리 총량의 1%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논점의 구조: 무역의 조정 비용은 다른 모든 경제 변화의 조정 비용과 종류가 같은데, 논쟁은 비용에만 집중하고 풍요라는 편익을 등한시한다는 것 — "중국이 물건을 풍부하게 만드는 대신 우리 가구와 월마트 재고를 파괴해 '충격'을 줬다면 일자리가 더 생겼을 것"이라는 풍자로 마무리한다. **[해석]** 어제 꼭지(볼드윈의 '글로벌 오피스' — 수출 연관 순 일자리 증가 전부가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와 같은 주간에 실리며, 제조업 무역 논쟁의 양쪽 자료가 이 블로그 롤 안에서 맞물렸다. '차이나 쇼크' 원논문조차 미국 경제가 '유린(ravaged)'당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인용 범위 안에서 전한다. 이 블로그의 자유무역 옹호 논조의 글로, 그 진영의 주장으로 읽어야 한다.

---

5. 동전 50만 닢으로 읽는 고대의 종말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소개한 새 논문(이코노메트리카 게재, 요하네스 뵘) — 고대 말기, 지중해의 정치 권력이 중동과 북유럽으로 이동할 때 무역과 경제 활동은 어떻게 변했는가. 생산·소비·무역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동전은 무역로를 따라 퍼졌으므로 동전 출토의 구성이 화폐화된 거래의 정보를 담는다. 저자는 4세기부터 10세기까지 고대 동전 약 50만 닢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역과 화폐의 동태 모형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지중해 무역은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 사이에 새로 그어진 국경에 의해 단절됐고, 경제 활동은 6세기부터 지중해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실질 소비는 8세기에 중동에서 정점을 찍고, 9세기 말에는 이슬람 스페인과 프랑크계 북서유럽이 고대 서양 세계의 최부유 지역이 됐다. **[해석]** 제목("이슬람이 세계를 탈세계화했는가")은 20세기 초 피렌 논제(이슬람의 부상이 지중해 통일성을 깨고 서유럽을 대서양으로 밀어 냈다는 가설)를 정량 경제사로 옮긴 것이다 — 기록 없는 시대를 물량 데이터로 읽는 계량사학의 성과로, 4번 꼭지의 현대 무역 논쟁과 '국경이 무역에 하는 일'이라는 같은 질문을 천 년 간격으로 나란히 놓는다. 초록 인용이므로 저자의 주장으로 전한다.

---

6. 가중치를 읽는 모델 — 노트북에서의 재현

[사실] 사이먼 윌리슨이 화제의 새 논문을 노트북에서 직접 검증했다. 논문('가중치 공간 프로그래밍의 불꽃')의 주장: 최전선 모델(GPT-6

아스트라)은 신경망의 원시 가중치 — 부동소수점 숫자 나열 — 만 보고도 그 네트워크가 무엇을 하도록 훈련됐는지 알아맞히고, 환경 피드백 없이 작은 게임 플레이 네트워크를 새로 작성해 1억 스텝 강화학습으로 훈련된 네트워크를 이기며, Qwen3.5-0.8B의 가중치 0.016%만 직접 고쳐 추론 반복 루프 결함을 치료해 수학 벤치마크(MATH-500) 점수를 7.9%에서 48.1%로 끌어올렸다. 저자들은 이를 '가중치 공간 프로그래밍'이라 명명했다. 윌리슨의 검증은 첫 번째 능력(도구 없이 가중치만으로 행동 파악)에 집중한다 — 논문이 공개한 프롬프트(브레이크아웃·퐁·팩맨·프리웨이 네 가지 게임으로 훈련된 정책망의 가중치)를 자기 노트북의 Qwen 3.8 27B(17GB 로컬 모델)에 돌린 결과: 팩맨 46분·72% 확신, 퐁 1시간 5분·75% 확신, 브레이크아웃 52분·88% 확신으로 각각 정답을 맞혔고, 덜 알려진 프리웨이는 실패했다. 상용 모델 키미 K3.1 프로는 9분 41초에 브레이크아웃을 맞혔다. 비판도 실린다 — spaCy 제작자 호니발은 도구 없는 해석과 코드를 쓴 수정을 한 논문에 섞은 것이 "오해를 부른다"고 했고, 게데케는 Qwen 수정 사례가 사람 연구자의 통상 절차와 같은 단계라고 분해했다. **[해석]** 해석 가능성 연구의 이정표 주장과, 그 주장을 하루 만에 노트북에서 재현해 보이는 오픈 가중치 생태계 — 이 둘의 결합이 이 꼭지의 무게다. 논문의 강한 주장(가중치 '수정'의 일반화)은 비판이 붙은 영역이고, 윌리슨이 재현한 것은 그중 가장 약한 주장(식별)이라는 점을 구분해 둔다.

---

7. 한 학술지의 계속되는 철회 — 119편 추가

[사실] 리트랙션 워치 보도 — 테일러앤프랜시스의 바이오엔지니어링 학술지(Bioengineered)가 10월 1~2일 119편을 추가 철회했다. 2021년 투고 급증과 저자 변경 요청 급증으로 시작된 조사 이후 누적 255편이고, 출판사는 1,000편 이상에 '조사 중' 표시를 붙였으며, 2025년 5월 클래리베이트가 이 저널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외했고 7월에는 신규 투고 접수가 중단됐다. 도화선에는 네덜란드 라드바우트대의 과학 감시 연구자 아쿠아리우스 팀의 분석(문제 소지 이미지를 담은 수백 편)이 있었고, 그는 "조사 중인 논문 수와 2021~22년 출판 정점을 볼 때 철회는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지 대부분은 "데이터와 결과의 정직성에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문구만 담고 구체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해석]** 어제 꼭지(13편 철회, 전임 편집장 포함)에 이은 이틀 연속의 출판 윤리 기사 — 페이퍼 밀(논문 공장) 시대의 정화는 건별이 아니라 수백 편 단위의 회계 감사로 진행된다. '조사 중 1,000편' 대비 '철회 255편'이라는 진도가 이 사건의 잔여 규모를 말해 준다.

8. 아일랜드의 세 회사 — 과세 기반의 집중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의 '오늘의 사실' — 아일랜드 법인세수의 거의 절반이 세 회사(애플, 일라이 릴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 기사(2차 인용)는 이 집중이 왜 아일랜드가 부유한 나라처럼 느껴지거나 작동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맥락으로 제시됐다. **[해석]** 2번 꼭지의 국가 버전 — 세수의 절반이 세 법인에 달린 구조는 매사추세츠(고소득층 이탈에 취약)와 캘리포니아(상위 1%가 소득세의 40%)의 개인 과세 기반 집중과 같은 취약성의 기업 판본이다. 조세 경쟁으로 얻은 수입은 조세 경쟁으로 떠날 수 있는 수입이다.

> **생략 3편 메모.** 에콘브라우저의 메인주 베팅 차트와 휘발유 가격 갱신은 차트만 실린 글이라 1번·3번 꼭지의 메모로 흡수했다. 마지널 레볼루션의 화요일 링크 모음은 생략하되 두 항목을 기록한다 — 평면 스크린 TV 개발의 선구자 시릴 힐섬의 부고(뉴욕타임스 링크, 노르드하우스·안드레오니에 이은 이 리포트의 부고 연속), 그리고 'AI가 채드 존스의 작업을 감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링크(미열람, 2차 인용 — 추적 중인 AI 감사 논쟁 꼭지의 연장일 가능성). 퍼먼의 'AI와 경제자문위원회' 링크는 11월 4일 경제학자 지위 꼭지의 후속 후보다.

반드시 읽어 볼 원문

· 선거 결과 종합 (AP) — https://apnews.com/article/midterm-election-house-senate-democrats-republicans-trump-f126e12e05b579a327b98481c0ae2226

· 상하원 판도 집계 (Ballotpedia) — https://news.ballotpedia.org/2026/11/04/democrats-win-u-s-house-and-senate-majorities/

· 2026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사설 (카페 하이에크) — https://cafehayek.com/2026/11/on-the-2026-midterm-results.html

· 선거 총평 — 지위 목록 (코웬)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the-election.html

· 가중치 해석 재현 실험 (사이먼 윌리슨) — https://simonwillison.net/2026/Nov/3/qwen-can-interpret-model-weights/

· 차이나 쇼크 논쟁 공개서한 — https://cafehayek.com/2026/11/shocked-by-the-china-shock-debate.html

· 고대 무역과 동전 50만 닢 (뵘 논문 소개)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trade-and-the-end-of-antiquity-or-did-islam-serve-to-deglobalize-the-world.html

· 바이오엔지니어드 119편 추가 철회 (리트랙션 워치)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1/03/bioengineered-retracts-119-more-papers-as-inve

stigation-continues/

· 아일랜드 법인세 집중 (마지널 레볼루션)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ireland-fact-of-the-day-8.html